

일본의 면 직물 업자가 중국에 도전

일본 면·스프(SF)직물공업조합연합회가 중국 상하이 시내 호텔에서 상하이 상설 전시장을 개설하는 파티에서, 게스트로 초대된 상하이시 복장행업협회(服裝行業協會)의 비서장은 “디자이너 몇 사람을 데리고 전시장에 와 보았는데, 일본에서 생산된 직물의 평가는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도 자주 와볼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면·스프직물공업조합연합회는 1995년 중국으로부터의 면 직물 수입 공세에 대하여 섬유 세이프 가드(纖維 safe guard : 섬유 제품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일본 정부에 신청하는 등 정부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서 있는 수입을 요구함과 동시에, 연합회도 스스로 민간 외교로 중국으로의 과잉 수출을 억제해 줄 것을 요구해 올 정도로, 일본 섬유 업계에서는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중국산 면 직물에 대한 수입 대책을 가장 과격하게 앞장서서 요구해 왔다. 그러한 연합회가 공격 대상이던 적지에 상설 전시장을 개설하고 현지에서 직물을 팔려고 하게 되었으니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

◎ 수출로써 방호를 공세로 바꿔

연합회 이사장은 상하이 상설 전시장을 개설하는데 즈음하여 “다년간 수입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방호(防護)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세(攻勢)로 바꾸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2년 전인 2002년부터 중국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시장으로 판단하고, 중국 내에 우리 제품을 전시할 전시장을 개설하자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하였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직물 업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산지 조합의 연합체인 직물공업조합연합회가 전시장 개설안을 결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사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시장 개척을 시작하였는데, 동업자들 사이에서 직물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급속히 번져갔다. 2003년에는 이사장단 회의에 전시장 설치안을 상정하여, 11월에는 수출진흥위원회와의 합동 회의에서 정식 결의를 보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 내에서의 면·스프·합섬 단섬유 직물의 2003년도 생산량을 보면 1995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량도 14%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 직물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한 것은 직물 수입의 증가만이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섬유 제품 수입의 증대가 주요 원인이며,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봉제이고 직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 증거로 직물 수출량은 그 동안 거의 수평을 이루는 비슷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일본의 고품질 소재와 중국 봉제 기술의 합작으로 세계 시장 개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일본의 고품질 소재와 세계 최강의 중국 봉제 기술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섬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수요를 크게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직물공업조합연합회의 상설 전시장은 시정부가 예술 구역으로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상하이 중심부에 있는 “상하이예술설계센터 빌딩 5층에 있으며,

일본계 어패럴 등의 상하이봉제섬유협동조합(STP)의 쇼 룸(show room)의 한 구석에 약 50m²를 확보하였다. STP가 전시하고 있는 많은 의재료품(衣材料品)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면 직물을 사용한 것도 적지 않아, 연합회의 전시물들은 상승 전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직은 연합회 산하의 약 3,000개 정도의 기업 중에서 1차적으로 5개 회사만이 전시품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다른 업자들은 “중국이 큰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품고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선발팀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는 전시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

이사장은 ① 중국 내에서 자기 브랜드로 시판하고 있는 일본계 어패럴 ② 중국의 유력한 SPA(제조자 소매) ③ 중국에서 봉제하고 있는 구미 브랜드의 세 가지 방향으로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장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앞세우고 “연합회가 각 조합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며, 이 조건을 어떻게 사업과 연결시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각 조합원의 책임이며, 자조 노력(自助努力) 여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장 개설은 스타트 라인(start line)에 불과하다. ♣